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觀點에서 본 古典에 관한 研究

김 태 길

(哲學科 教授)

1. 現代 韓國의 文化的 風土와 古典

1. 韓國의 靑少年과 讀書傾向

국가의 장래는 그 나라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精神的 力量에——價値觀, 상상력, 理解力, 정신 건강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신적 역량에——달려 있다. 그리고,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정신적 역량을 함양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教育이며, 각급 교육 과정에 있어서 讀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욱 크다.

우리 한국이 현재 매우 중대한 시련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다. 이 중대한 시기를 슬기롭게 남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적 역량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거니와, 국민의 정신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좋은 책이 많이 읽히는 일 즉 건전한 讀書風土를 가꾸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독서 풍토는 아직도 매우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독서의 양이 적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책에 대한 관심은 프로 야구, 팝송 또는 영화 등 오락에 대한 관심을 밀도는 편이며, 책을 사는 데 쓰는 돈보다는 술집과 다방 또는 전자 오락실에서 소비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경희대학교 洪起宣 교수 팀이 조사한 “韓國人의 讀書 行態”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 두 달 이상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인의 경우는 10%가 넘고, 대학생의 경우는 9%가 넘는다. 그리고 ‘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평균 기간’은 직장인의 경우가 약 1개월이고, 대학생의 경우는 약 3주일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여기서 말하는 ‘책’ 가운데는 주간지와 월간지 그리고 만화 따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책 다운 책을 읽는 일이 적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¹⁾

讀書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量보다도 質이다.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어떠한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1) 洪起宣 교수 팀의 「韓國人의 讀書行態」라는 보고서는, 大韓出版文化協會의 위촉을 받고 1980년 7월~11월 사이에 실시한 設問調査에 의거한 것이며, 『出版文化』誌에 1981년 1월호에서부터 3월호까지 3회에 걸쳐서연재된 바 있다.

내용의 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대 한국인이 어떠한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관한 정확한 조사 보고는 필자의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거의 없다. 앞에서 말한 홍기선 교수 팀의 조사 보고에서도 이 점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이 조사가 주로 讀書의 外形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비록 정확한 통계의 자료는 없더라도, 우리들은 일상적 관찰을 통해서, 현대의 한국인이 주로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 베스트 셀리에 관한 보도, 출판업자들의 증언, 신문 잡지 등의 책 광고 등을 통하여, 독서의 질에 관한 실태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洪起宣 교수 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주 읽는 책'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주부 어느 부류에 있어서나 文學書籍이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지에 관한 통계는 없고, 다만 '최근에 3명 이상이 읽는 책'의 이름이 몇몇 소개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게 소개된 책의 이름을 보면,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쓴 당시의 베스트 셀러가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 대중 소설의 번역판 또는 <三國志> 따위의 무협 소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罪와罰>, <좁은 門> 따위의 서양 고전 번역서의 이름이 보인다.

'문학 서적'에도 여러가지 종류와 등급이 있고 또 같은 문학 서적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다'는 통계 수자만으로는 그 사회의 讀書의 質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조사 보고서와 그 밖의 일상적 관찰을 종합할 때, 대략 다음과 같은 추측이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1) 많이 읽히는 문학 서적의 대중을 이루는 것은 소설이며, 소설 가운데서도 무게가 있는 고전보다는 일시적으로 人氣가 높은 책 또는 흥미로운 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2) 고등 학생들의 경우에는 古典도 일부 선택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뜻을 깊이 새겨 가며 읽기보다는 이야기 줄거리를 좇아 가며 곁길기로 읽는 경우가 많다. (3)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실 비판적 참여 의식이 강한 소설이 많이 읽힌다.

문학 서적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것은 '전문 서적과 어학 서적'이다. 홍기선 교수 팀에 의해서 '技能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이 부류의 서적은 入學과 進級 또는 취직과 승진 등의 전제 조건이 되는 시험 내지 실력 양성을 위해서 읽어야 할 책들이다. 요컨대, 사회 경쟁에서 승리가 되어 세속적 성공을 거두기에 필요한 독서가 문학 서적을 대상으로 삼는 독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홍기선 교수 팀의 보고서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최근 대학생 사회에 현저한 또 하나의 독서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또 하나의 경향이란 어떤 정치 사상과 친근성이 있는 한가지 계통의 사회 과학 서적으로 쏠리는 일부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

을 가리킨다. 대학생들은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이 예민한 연령층에 속하므로 사회 현실 속에 발견되는 갖가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이 비판적 태도가 현실개조의 의지로 발전할 때, 그들은 자연히 그 현실 개조의 이론적 기반과 전략적 처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이론적 기반과 전략적 처방을 마련하는 마당에서, 경험이 적고 마음이 급한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두루 섭렵하고 또 우리 현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신중한 결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대적 조류를 따라서 직관적으로 선택한 한 가지 계통의 사상 내지 이념을 전제로 삼고, 그 계통의 서적만을 편파적으로 탐독하는 경향으로 쏠리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대 한국인의 독서 경향 특히 청소년층의 독서 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그러한 독서 경향의 윤곽을 전제로 삼고, 우리 독서 풍토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거듭된 여론이 지적해 왔듯이, 독서의 量이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바쁜 세상에 왜 반드시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우리의 통념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세계의 넓이와 깊이를 키워야 하거니와, 각자의 정신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體驗과 思索이 풍부해야 하고, 나의 체험과 사색의 폭을 넓히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의 하나가 탁월한 사람들의 체험과 사색의 기록을 주의깊게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독서의 목적을 주로 세속적 실리와 오락에 두고, 인생관의 수립 또는 인격의 도야를 위한 마음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책을 읽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는 사실에도 문제가 있다. 세속적 실리나 오락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경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실리도 중요하고 오락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소홀히 생각하지는 것이 아니며, 실리와 오락을 위한 독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은 더욱 아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관 수립과 인격 도야의 바탕이 되는 교양을 위해서 읽는 독서는 독서 가운데서도 가장 뜻있는 독서라는 사실이다.

셋째로, 대학생 사회에 있어서, 여러가지 계열의 사상적 문헌이 두루 읽히지 않고, 성급하게 선택된 한 가지 계열의 서적만이 편파적으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특수한 계열의 책을 읽는 것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상을 두루 공부하고 그것들을 비교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현실도 충분히 고려한 연후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국가의 장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막중한 문제이며, 학생이라는 신분이, 어떤 단

정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널리 배우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다 기본적인 광범위한 독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人生設計와 讀書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독서라는 행위에도 목적이 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 한 나라 전체의 독서 풍토 역시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

한 개인이 讀書의 目的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 人生設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 반드시 의식적으로 명확한 인생 설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각각 막연하게나마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게 마련이며, 독서라는 행위도 그 목적과 계획 여하를 따라서 그 질과 양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의 일반적 독서 풍토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회 성원들의 일반적 인생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한국인의 독서의 목적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락과 실리이다. 즉,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흥미 위주의 책을 읽는 경우와 자격 시험 또는 경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로서 책을 읽는 경우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人格 成長의 바탕이 될 敎養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는 경우는 비교적 미약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서의 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현대 한국인의 인생 목표에 있어서 일시적 오락과 세속적 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격의 성장 또는 自我의 實現이 차지하는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삶에 있어서 오락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세속적 실리를 무시하고는 하루도 살아 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흥미와 오락을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시험 합격 따위의 실리를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독서 행위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락과 실리를 위한 독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인격 성장의 바탕이 되는 교양을 위한 독서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 독서를 위해서 할애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하며 독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체 시간 가운데서 특히 마음의 양식을 위한 독서에 소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개인의 인생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순간적 오락과 세속적 실리를 삶의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는 설계를 가진 사람들은 오락과 실리를 위해서 독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책을 읽을 것이요, 인격의 성장에 중점을 둔 自我의 實現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설계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으로서의 의의가 큰 고전적 양서를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삶을 설계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며, 어떤 한 가지 유형의 설계만이 절대로 옳다는 주장을 만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 오락 또는 세속적 실리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설계와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自我의 實現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설계를 비교할 때, 후자가 더 바람직한 설계라는 것을 우리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순간적 오락은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순간적 오락 그 자체가 갖는 가치는 그리 큰 것이 아니며,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때 비로소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 때 보다 큰 목적이란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자아의 실현이요, 사회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集大成으로서의 文化創造이다.

세속적 실리도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목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다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단계의 手段的 價値로서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다 높은 목적이란 개인적으로는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自我의 實現이요, 사회적으로는 개인적 자아 실현의 집대성으로서의 文化 창조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순간적 오락도 세속적 실리도 모두 값진 것이고 소망스러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들 자체가 궁극적 가치로서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며, 自我의 實現과 文化의 創造라는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치에 머무를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다.

세속적 實利는 경쟁성이 강한 목표이다. 세속적 실리의 대표로 생각할 수 있는 재산과 권력 또는 지위 등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김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는 세속적 실리의 강한 경쟁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오락도 그것이 고급화하여 향락의 경지에 이르면 강한 경쟁성을 띠게 된다. 오락 내지 향락 그 자체가 반드시 경쟁성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고급 오락 시설 또는 유락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돈이 강한 경쟁성을 가진 가치인 까닭에 고급화된 향락도 간접적 경쟁성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自我의 實現은 그 본질에 있어서 경쟁성이 강한 목표가 아니다. 몸과 마음을 닦고 갈아서 각자가 타고난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경쟁에서의 승리를 필수 조건으로 삼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충분히 노력만 하면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심신을 만족스럽게 연마하자면 일정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하고, 좋은 교육 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실현도 경쟁성을 내포하는 삶의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의 실현'이라는 개념은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나 '성공'과는 본질이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아 실현의 목표가 가진 경쟁성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님을 곧 알 수 있을 것

이다.

자아의 실현이란 각자가 타고난 소질을 연마하여 그 잠재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일이며, 반드시 이른바 일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일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가지 계열과 여러 가지 계층의 교육 기관이 있거니와,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 기관을 선택함으로써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 시설이 모든 국민의 소질을 연마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젊은이가 각자의 적성을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한국이 장기적 계획으로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의 하나이다.

비록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소질을 타고난 젊은이라 하더라도, 학비를 부담할 만한 경제력이 없으면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주장이 못 된다. 현재 우리 나라 각 대학과 그 후원 기관에는 상당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뛰어난 우수 학생이면 대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그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질과 의지가 있는 젊은이는 누구나 그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남은 과제의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自我實現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경쟁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전한 경쟁의 길로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적은 성질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자아 실현의 목표가 요구하는 경쟁은 세속적 실리의 획득 또는 향락을 위한 경제력의 획득을 목표로 삼을 때에 일어나기 쉬운 치열하고 과도한 경쟁과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

우리가 여기서 삶의 목표가 지닌 경쟁성을 문제로 삼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 목표가 지닌 경쟁성과 공동체의 발전이 요구하는 협동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목표가 강한 경쟁성을 지닐 경우에는 그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자면 우리가 함께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발전해야 하거니와, 우리들 각자가 추구하는 개인적 목표가 지나치게 강한 경쟁성을 가졌을 때는, 우리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어긋나는 까닭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대국적으로 협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우리는 개인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향락이나 세속적 실리보다도 자아의 실현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두 가지 지적인 셈이다. 첫째로, 가치론

적 견지에서 볼 때, 自我實現의 價値를 향락이나 세속적 실리보다도 한 층 더 높은 가치로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까닭에 그것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가치가 지닌 경쟁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자아의 실현이 요구하는 경쟁은 향락이나 세속적 실리의 달성이 요구하는 경쟁에 비하여 사회적 협동을 파괴할 염려가 큰 까닭에,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개인들의 인생 설계와 그에 따르는 독서 경향은 그들이 사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 풍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개인주의의 색채가 농후한 현대인도 사회적 존재임에는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활 태도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를테면, 세속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과 인격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경지 이룬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후자를 더 높이 대접한다면 사람들은 인격의 성장에 중심을 둔 자아의 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세속적 실리를 획득하는 일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보는 경향으로 기울다면,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에 더 많은 정열을 기울일 것이다. 독서의 경향에 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특히 깊이있는 교양서를 많이 읽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당장의 읽는 즐거움보다 장차의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읽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의 풍토 하나만을 떼어서 양서 읽기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한다 해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가치 풍토 전체의 개선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독서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3. 古典 出版과 고전 읽기운동

우리 나라 독서 풍토를 개선하여 좋은 책이 많이 읽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며, 그러한 여론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즈음도 매년 가을이면 <독서 강조 기간> 따위를 정하고 여러 언론 기관이 좋은 책 읽기의 제공에 나서고 있으며, 양서의 저작과 출판을 표창하고 권장하는 出版文化賞의 제도 또는 優良圖書 추천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良書의 기본이 되는 것은 古典이며, 좋은 고전이 많이 읽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찍부터 일어났다. 고전이 많이 읽히기 위해서는 읽기 쉬운 고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판단에 입각하여, 고전의 번역과 출판을 앞세우는 움직임이 여기 저기 있었다.

좋은 책을 많이 출판하여 많이 읽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입각한 여러가지 움직임이 그 동안에 실제로 거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노력에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出版과 讀書에 관하여 여러 공공 기관 또는 사설 단체에서 그 동안 전개한 운동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표방된 목표가 컸던 데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거둔 성과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고전 읽기 운동’의 성적이 부진했다는 인상이 짙다.

우선 古典의 選定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으로 부를 수 있는 인류의 유산을 전부 출판하여 모두 읽히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하거니와, 그 選定의 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韓國人을 위한 古典이 선정되었어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주로 외국의 고전적 작품에 의존하여 世界古典叢書를 발간했거니와, 그 作品 選定의 원칙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인상을 준다. 작품 하나 하나가 갖는 현대적 의의 특히 그 教育的 價値를 깊이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유명한 것’들을 뽑아 모은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철학 전문가를 위해서는 매우 귀중한 고전이지만, 너무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까닭에,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저술이 교양 도서로서의 고전 총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의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서 韓國의 古典을 보급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남의 나라의 고전보다도 우리 나라의 고전이 우리에게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견해이며, 우리 자신의 傳統 속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취사 선택과 우선 순위의 기준이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 역사 연구를 위해서라면 우리 나라의 모든 고전이 귀중한 자료로서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서로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족주의적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쓰여진 윤리적 교훈 가운데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것은 우리 조상의 저술이라는 점을 사상한다면 별로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을 간직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의 古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우리들의 옛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에 큰 의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古典의 翻譯에도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의 원전은 거의 모두가 외국어 또는 옛말로 쓰여져 있으므로 널리 읽히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거니와, 이 번역의 과정도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번역이라는 知的 作業이 매우 어려운 일인 데 비하여 보수가 박하고 또 업적으로서의 인정도 받기 어려운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전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도록 탁월한 실력을 가진 문필가가 번역 사업에 종사하기를 원치 않으며, 어떤 사정으로 번역을 맡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전 번역은 일반 서적의 번역보다도 어려운 것이 보통이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붙일 필요가 있는 귀절이 허다하다. 따라서, 고전의 만족스러운 번역을 위해

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거니와, 번역자도 출판 업자도 이 일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졸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책임한 번역판 고전을 세상에 내놓는 결과가 되기 쉽다.

번역은 原典에 직접 접해서 해야 한다. 예컨대, Platus의 저서를 번역하자면 희랍어 원전을 대본으로 삼아야 하고, Tolstoy의 저술을 번역하자면 러시아어에 능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번역 도서 가운데는 번역서를 대본으로 삼은 重譯이 허다하다. 원전의 뜻을 완전하게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까닭에, 중역으로 이루어진 번역판은 내용에 있어서 원전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고전 읽기 운동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이 운동이 순수한 문화사업으로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삼은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출판 사업이란 본래 문화 사업을 겸한 營利行爲라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영리를 완전히 외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 나라 출판계의 현실이 文化事業과 營利를 양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전으로서 손색이 없는 좋은 번역 총서를 발간하자면 막대한 제작비가 필요하거니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함으로써 완벽에 가까운 고전 번역 총서를 간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경제력을 아울러 가진 업자가 우리 나라에 흔하지 않은 것이다. 고전적 교양서가 많이 읽히는 독서 '풍토'라면 영리적 동기로도 좋은 교양 도서를 출판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까닭에 업자만의 책임으로 보기도 어렵다.²⁾

4. 現代 韓國人을 위한 古典

세상에서 전통적으로 '古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술들은 모두 위대한 인간 정신이 남긴 인류의 유산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현대 한국인을 위한 敎養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세계 각국의 모든 고전을 통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古典들은 대개 속히 읽어 넘겨서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며, 양적으로 많이 읽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깊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 내외의 수많은 고전들 가운데서 특히 현대 한국인을 위해서 보배로운 저술들이 무엇이나는 물음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대 한국의 독자를 기준으로 삼은 優先順位에 따르는 古典의 選擇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우선 순위를 비교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選擇의 基準을 정하는 일이다.

첫째로, 다른 점이 없을 경우에는, 현대 한국인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2) 營利의 목적이 없는 순수한 文化事業임을 표방하고 출판한 '고전 읽기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안으로 목표하는 바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문제들 또는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성이 깊을수록 優先順位에 있어서 앞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거니와, 이 문제들의 숲을 뚫고 나아가기에 필요한 삶의 지혜의 일부를 고전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다. 그러한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고전일수록 읽는 보람이 큰 고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부딪치는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을 직접 다룬 저술들만이 우리를 위해서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 또는 사고 방식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은 삶의 지혜에 가득찬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려움에 당면하여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용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대할 때는 견지해야 할 성실한 태도, 사태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편견 없이 바라보는 공정하고 폭넓은 안목, 또는 일관성 있는 논리를 따라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원만하게 종합할 수 있는 思考의 能力 등을 길러 주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고전들은 우리가 말하는 삶의 지혜가 담긴 고전에 해당한다.

예컨대, 존재나 인식의 문제를 다룬 철학적 고전들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들을 뜻있게 읽는 독자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사리를 구명하는 진지한 태도를 배울 수도 있고, 치밀한 분석의 사고력을 기를 수도 있다. 또 Shakespeare나 Dostoevski의 작품 주인공들이 부딪친 문제들과 현대 한국인이 부딪치는 문제들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저 문호들의 작품을 깊게 이해하고 읽는 독자들은 인간과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을 넓힐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다른 점이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韓國의 傳統文化와의 거리가 가까운 고전일수록 높은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령, 같은 수준의 문학적 가치나 철학적 가치가 인정되는 세 권의 저술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저자가 한국인이요 다른 두 권의 저자는 각각 중국인과 프랑스인이라면, 우리는 한국 고전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주고, 다음은 중국과 프랑스의 순서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文化的 傳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남의 나라의 전통에 대한 이해보다도 제 나라의 그것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古典의 독서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한 이해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의 기록으로서의 의의가 큰 고전 가운데서도 자기 나라의 고전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다른 점이 같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고전을 남의 나라의 고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國粹主義나 復古主義의 일환으로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저술과 외국의 저술이 동일한 보편적 기준에 의하여 비교될 때 만약 둘이 같은

수준의 세계적 명작으로 인정된다면, 우리 나라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국수주의도 복고주의도 없다. 같은 수준의 두 저술 가운데서 남의 나라의 것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事大主義의 혐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별로 평가될 만한 내용을 갖추지 못한 저술을 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나라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높이 추켜세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 나라의 역사적 유산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애정이 맹목적 숭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세째로, 다른 점이 같을 경우에는, 現代性이 강한 古典에 優先性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대성’이라 함은, 그 저술의 사상적 내용이 현대와 두터운 親近性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에 대한 영향이 큰 정도를 지칭한다. 예전대, 신비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사상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는 고전보다는 과학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사상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는 고전이 現代性이 강하다. 봉건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형성되었으며, 봉건 사회에나 적합한 윤리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교훈적 고전보다는 市民社會에 적합한 윤리 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교훈적 고전에 더 강한 현대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現代의 古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현대의 학자 또는 현대의 작가가 저술한 서적 가운데 古典의 權威가 인정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도 古典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서 마땅할 뿐 아니라, 그 現代性으로 말미암아 우선적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古典이라는 이름에 구애하여 옛날의 서적만을 소중히 여길 이유는 없을 것이며, 다른 점이 같다면 現代의 古典에 優先性을 인정하는 것이 事理에 합당할 것이다.

다만, 현대의 저술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과연 고전적 가치를 가진 저술인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가려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歷史的 偉人을 뽑아내는 일이 어렵듯이, 현대의 저술 가운데서 古典을 뽑아내는 일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평론이 크게 활발한 까닭에 어떤 저술의 定評이 형성되기까지에 옛날과 같이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古典叢書의 간행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의 고전과 현대의 고전을 구분해서 묶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옛날의 고전과 오늘의 고전을 같은 척도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할 것이다. 옛날의 고전과 오늘의 고전 사이의 우선 순위의 문제는 독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다. 현대 한국 젊은이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자에 중점을 두는 것도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철학, 문학, 역사, 과학 등 여러 분야 가운데서 어떤 분야의 고전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인 해답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이며, 편집자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가지의 특색이 각각 다른 결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고전을 어느 분야의 저술로 보느냐 하는 것 부터가 편의상의 구분 이상의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분야별 배정의 문제를 과히 심각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서의 목적은 사람을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다를 수가 있다. 오락을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읽을 수도 있다. 독서의 목적을 따라서, 읽히는 책도 달라질 것이며 읽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슨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오락이나 機能的 必要를 위한 독서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人間的 成長을 위한 독서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 신념이며, 이 人間的 成長을 위해서 읽혀야 할 책들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古典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通念이다.

그러나,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아무 고전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우리들 특히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의 知性的 思考力을 조장하고 건전한 價値觀의 定立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古典을 선택적으로 정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토록 목적에 맞는 독서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고전들이 우선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에는 선정된 도서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과 그 번역판을 간행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本研究는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目標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적합한 古典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시론이다. 우리는 韓國에 大學生들을 위해서 특히 우선적으로 권장할 만한 고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世界의 古典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하였다. (1) 韓國의 古典, (2) 東洋의 古典, (3) 西洋의 古典, 韓國의 古典 가운데는 漢文으로 쓰여진 것과 한글로 쓰여진 것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으며, 東洋의 古典 가운데는 中國과 印度의 고전만을 다루기로 하였다. 西洋의 古典 가운데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에서 현대 서구 여러 나라의 고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의 영역을 잡기로 하였다. 전공 분야에 따라서 韓國과 印度의 고전은 주로 沈在龍이 담당하고, 中國의 고전은 金學主가 맡았으며, 西洋의 古典은 朴熙鎭이 담당하되, 공동 연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때때로 회동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觀點에서 본 中國의 古典

金 學 主

(中文科 教授)

內 容

- 一. 緒 論
- 二. 韓國에 關하고 있는 中國의 典籍
- 三. 「新東亞」誌의 「中國古典 100選」
- 四. 우리 文化·教育의 觀點에서 選擇한 中國의 古典
- 五. 中國 古典 翻譯紹介의 方法

一. 緒 論

우리 나라는 中國과 歷史的·文化的으로 밀접한 관계 아래 발전하여 왔다. 中國을 빼어 버리고는 우리 나라 歷史나 文化를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크게 보면 이전에는 中國文化圈 안에 속해 있었다. 그러기에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教育의 資料는 모두 中國말로 이루어진 中國의 文獻이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 先人들의 教養의 바탕이 되어온 것이 中國 文獻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文化 全般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옛날부터 中國의 典籍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책들 보다는 널리 읽히고 존중되어 왔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中國의 典籍들이 우리 말로 譯解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그러나 中國文化를 一方的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던 옛날과는 時代的 狀況이 지금은 크게 달라져 있다. 이제는 自主的인 教育을 발판으로 하여 참된 우리 文化를 건설해야만 할 시기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先人들에게 영향을 주어진 中國의 典籍들을 하루 아침에 폐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까지 읽혀온 中國의 典籍들을 檢討하고 批評하여 우리가 읽어야만 할 古典들을 定立하여야만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小論은 이를 위한 基礎作業으로서의 뜻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이 作業은 특히 韓國의 文化와 教育의 觀點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힘이 주어질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 나라에는 中國의 典籍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많이 읽히고 있는가? 여러 出版社에서 翻譯 出版된 思想全集과 文庫本을 中心으로 實態를 把握한다. 그리고 이들 중 어떤 책들이 가장 많이 읽혔는가? 韓國에서 읽혀진 中國 典籍들은 어떤 特徵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中國 典籍의 翻譯 紹介는 選擇이나 翻譯이 適切한 것이었는가? 따위의 問題들을 아울러 檢討해 볼 것이다.

둘째: 中國의 典籍들은 거의 모두가 지난 封建時代의 產物이어서, 그것들을 現代社會에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紹介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問題들이 있다. 內容上 또는 形式上 이것들은 어떤 問題들을 안고 있는가 檢討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책: 이러한 中國의 典籍들은 우리나라의 文化와 教育에 있어 어떤 意義를 지니는 것인가? 특히 自主의인 文化와 올바른 教育을 위한 古典을 定立하는데 있어 이들이 지니는 意義가 考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中國의 古典이 選擇되어야 할 것이다. 古典을 통한 教育이 올바른 判斷能力과 健全한 思考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사회가 要求하는 教養人 또는 知性의 養成에 목적이 있다며는, 과거에 있어서의 우리 文化에의 寄與度 보다 앞으로의 意義가 더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내책: 끝으로 이렇게 選擇된 古典들을 어떻게 번역 소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選擇된 典籍 別로 간단히 檢討될 것이다.

이 作業의 目的은 中國의 옛 典籍들을 우리 나라에 살리어 새로운 教育의 發展과 文化의 建設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에 따라 典籍에 대한 견해를 크게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나, 적어도 中國의 古典을 우리 나라에 定着시키는 기초작업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二. 韓國에 읽히고 있는 中國의 典籍

우리 나라에는 大洋·徽文·三省 등의 출판사에서 「世界思想全集」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적지 않은 中國의 典籍들이 끼어 있다. 여기에는 모두 儒家의 經傳들과 諸子書를 爲 주로 한 思想關係 典籍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모두 儒家의 經典 중에서도 「論語」·「孟子」는 넣으면서도 이른바 〈三經〉인 「詩經」·「書經」·「易經」은 除外되고 있는 점이 크게 눈에 뜨인다. 따라서 〈五經〉 속에 들어가는 「禮記」·「春秋」가 除外되고 있음은 불문이다. 大洋出版社에서는 「論語」·「孟子」 이외에도 宋代의 「近思錄」·明代 王陽明의 「傳習錄」도 넣고 있고, 徽文出版社의 경우에는 漢代 賈誼의 「新書」나 董仲舒의 「春秋繁露」 등도 넣고 있으면서, 儒家經典의 中心을 이루는 〈三經〉 또는 〈五經〉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쉽사리 納得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李朝에 盛行한 性理學의 그릇된 영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거기에 비하여 「荀子」·「老子」·「莊子」·「墨子」·「韓非子」 등 대표적인 諸子書들은 모두 들어있다. 이 밖에 「呂氏春秋」·「淮南子」·「抱朴子」 등도 中國思想을 대표하는 책들로서 선택한 것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아무래도 思想全集은 思想을 爲 주로 고른 책들이 모아져 있음으로 古典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偏向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보다도 좀 더 넓은 범위의 책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 出版社에서 낸 文庫本들이다. 우리 나라에는 三省文化財團의 三省文庫를 비롯하여 乙酉文庫·瑞文堂文庫·博英文庫·明文堂新書·三中堂文庫·培英社新書 등에 적지 않은 中國의 책들이 選譯되어 있다. 그 중에

서도 乙酉·瑞文堂·博英·正音社 등에 가장 많은 中國 책들이 들어있다.

이들을 綜合해 보면 中國의 典籍 중 「論語」·「孟子」는 三省을 除外한 全 文庫 속에 다 들어있고, 「大學」·「中庸」은 다시 三中堂과 博英社를 除外한 다른 文庫 속에 다 들어있다. 따라서 中國의 典籍들 중 이른바 〈四書〉가 思想面에서 가장 重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儒家의 經典으로는 「詩經」이 乙酉·正音社·瑞文堂에서 나왔고, 「書經」이 乙酉·瑞文堂에서, 「易經」이 瑞文堂에서 나와있다. 이 밖에 乙酉에 「孝經」, 三星에 「左傳選」, 培英社에 「小學」 따위가 눈에 띄었다. 諸子書로는 「老子」와 「莊子」가 각각 두 곳 文庫 속에 발견되었고, 특히 「孫子兵法」은 세 곳에서 나와 있어 그 人氣度를 짐작케 한다. 正音社에는 「六韜三略」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兵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듯 하다.

史書로는 三星에 「史記列傳」과 博英에 「十八史略」 정도가 눈에 뜨일 뿐이다. 中國의 史書들은 어느 時代의 歷史를 막론하고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에게 소개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인 듯 하다.

文學作品으로는 「唐詩選」(三星·正音·乙酉), 「李白詩選」(乙酉·三中堂·瑞文), 「杜甫詩選」(正音·乙酉)의 세 가지가 두드러지며, 「古詩十九首」(瑞文) 같은 例外도 있기는 하다. 小說로는 四大奇書 중에서도 「三國志」(博英·三中堂·瑞文)가 가장 널리 읽히는 듯 하며, 瑞文에 「水滸傳」·「西遊記」가 들어 있으나 「金瓶梅」는 보이지 않는다. 이 밖에도 小說로는 「紅樓夢」(瑞文)·「聊齋志異」(乙酉)·「唐代小說」(乙酉) 등이 눈에 뜨인다. 散文으로 「唐宋八家文」(博英)·「中國歷代隨筆選」(乙酉)이 있고, 그 밖에도 「考槃餘事」(乙酉)·「林語堂隨想錄」(乙酉)·「三民主義」(三省)·「胡適文選」(三省)·「明夷待訪錄」(三省) 등이 보인다. 다시 乙酉에는 「千字文」·「中國新文學講話」·「朱子行狀」·「四十自述」 등이 있고, 三星에는 「中國古典入門」, 正音社에는 「中國民譚選」·「中國文化史概論」 등이 들어 있다.

이러한 叢書 이외에도 「四書」는 무려 6,7個 出版社가 出版하고 있고, 「三國志」도 그 정도이니 中國 典籍 중에서 가장 우리 나라에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이 이 두가지임을 알겠다. 이 밖에는 「唐詩選」을 비롯한 中國의 「古詩選集」 및 李白·杜甫·白居易 등 代表的 作家들의 詩選集과 小說로는 「水滸傳」·「西遊記」·「老殘遊記」 등이 몇몇 出版社에 의하여 出刊되었다. 現代作家로는 魯迅의 作品이 가장 많이 紹介되었고, 그 밖에는 老舍·矛盾·巴金의 一部가 번역되었다. 이에 의하면 中國의 典籍은 先秦의 經子와 함께 後世의 文學作品들이 選好度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들은 어떤 一定한 基準으로 選擇된 것이 아니라, 出版社와 譯者의 취향에 따라 적당히 選擇되어 번역 紹介된 것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나라 讀者層 및 文化界의 要請도 어느 정도 反映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 두세번 이상 번역 出版된 책이라며는 一般的으로 우리 나라에서 重視되고 있고 그 영향도 적지 않은 典籍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書目을 들면 아래와 같다.